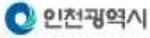
		<b>보 도 자 료</b>		2025년 <b>수도권매립지 종료</b> 	
		배포일자	2021년 2월 3일(수) 총 5매		
담당 부서	인천 시립박물관	담당자	• 전시교육부장 배성수 ☎440-6731 • 학예연구사 김유나 ☎440-6759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만 있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역사랑 친해질 수 있을까?**  
 - 인천시립박물관이 제안하는 역사 교육법 -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이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게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와 유튜브 영상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 먼저 온라인 전시는 인천시립박물관 공식 홈페이지(incheon.go.kr/museum)에 접속 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전시-온라인 전시관’ 게시판에 들어가면 VR로 구현된 다채로운 전시를 만날 수 있다.
- 또한 ‘열린광장-자료실’ 게시판에 게시된 자료들을 활용한다면 더욱 즐겁게 전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인천시립박물관은 작년 연말에 상설전시 관람을 위한 어린이용 활동지를 만들었는데, 이를 온라인에도 공개하게 되었다. A4용지에 활동지를 인쇄하고 1시간 가량 제한시간을 둔다. VR전시를 보면서 활동지를 풀면 게임하듯 자연스럽게 지식을 쌓을 수 있다.

- 한편 VR전시 관람이 어렵다면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유튜브에 “인천시립박물관”을 검색하면 전시와 교육에 사용된 영상들이 공개되어 있다. 인천시립박물관 마스코트 인시박과 뮤나가 설명해주는 상설전시 영상은 물론이고, 기획특별전 해설 영상도 볼 수 있다.
- 최근에는 <뒷간, 화장실이 되다> 전시 영상도 공개되었다. 애니메이션, 샌드아트, 사진영상,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영상을 보다 보면 훌쩍 지난 시간과 함께 지식도 쌓여있을 것이다. 가정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예덕선생과 유시는 이후에 어떤 사이가 됐을까?” 등의 생각거리를 질문하거나 측신과 성주신 설화를 모티브로 한 ‘신과 함께’ 등의 영화를 관람한다면 무료한 방학은 먼 이야기가 될 것이다.
- 또한 인천시립박물관 공식 블로그에서는 2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마다 <뒷간, 화장실이 되다> 영상 시청 후 연계활동을 소개한다
-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질 좋은 온라인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 19가 잠잠해져 박물관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교육을 듣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관련 사진



「사진 1」  
온라인 전시관 모습



「사진 2」  
상설전시 VR



「사진 3」  
특별전시 VR



[사진 4]  
어린이 활동지



「사진 5」  
상설전시 교육 영상



「사진 6」  
애니메이션 영상



노일자대는 여산부인 행세를 하며 남선비와 오동마을을 떠나  
남선고을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남아있던 일곱 형제 모두를 속인다.

「사진 7」  
샌드아트 영상